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60.58	↓ 코스닥	627.01
	(-67.58)		(-34.32)
↓ 금리 (연이자율)	2.579	↑ 환율 (원/달러)	1433.60
	(-0.041)		(+14.40)

metro 경제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 금지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경기침체·트럼프·탄핵정국 ‘삼중고’

재계, 비상태세 돌입... 국내외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2025년 1월 20일)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및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재계는 조만간 국내외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성과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4·6면〉

9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탄핵소추 정국 사태 여파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환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 침체 속 ‘트럼프 2기’ 출범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 급등까지
산업계, 정책지원 공백 우려 확산

삼성·LG·현대차, 전략회의 준비
통신·배터리, 리스크 관리 강화

재계는 환율 상승과 함께 정부 정책 지원 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트럼프 2기가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해외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기업들의 대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등으로 인해 전사적인 영향은 받을 것”이라며 “주요인 반도체 사업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계열령 탄핵 쇼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간 환율상승은 반도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전체에 악재가 될 것”이라며 “원자재 값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 해외 설비 투자 방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일단 환율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응 매뉴얼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이슈 발생마다 트래픽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동기지국을 추가 개통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정보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터리업계는 “이차전지의 해외 사업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환율 상승 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급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의 불안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계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특히 철강업계 특성상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IT 스타트업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처리 불발로 불확실성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 리스크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재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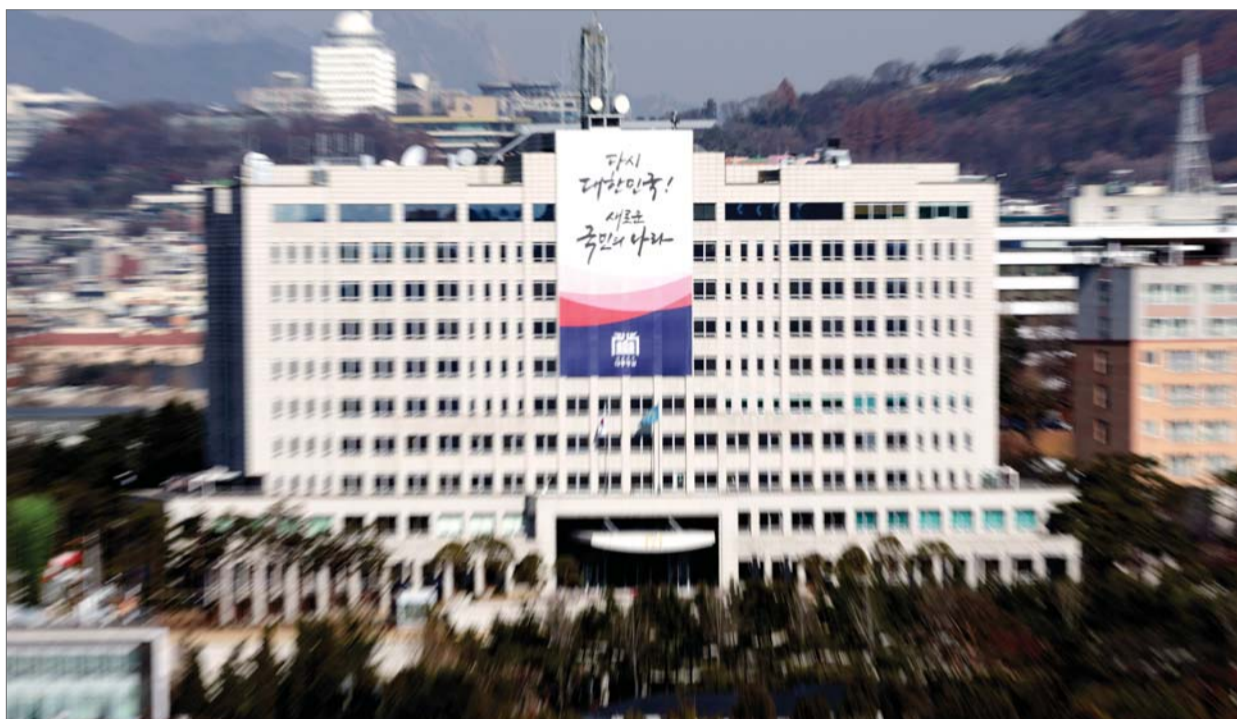
또 재계는 국내외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성과 위기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각 사업부별 미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회의는 한종희 DX 부문장(부회장)과 전영현 DS 부문장(부회장)이 각각 부문별로 주재한다. DS부문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새 미주총괄(DSA)로 선임된 조상연 부사장 등이 참석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현지 반도체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회복 방안과 내년 사업 목표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분기마다 한 번씩 사장단 협의회를 개최하는 LG그룹도 이달 중순에 구광모 LG 그룹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미래사업 역량 확보와 성장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구 회장은 지난 9월 사장단 워크숍에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주 중 해외 권역본부장회의를 열고 각 권역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상·하반기 한 차례씩 미주, 유럽, 인도 등 해외 권역 본부장들을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호승성 기아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참여해 국내외 사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방향타’ 잃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침묵 상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은 뜸 끊긴 상태다. 사진은 대통령실 외경. /뉴시스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 원화·주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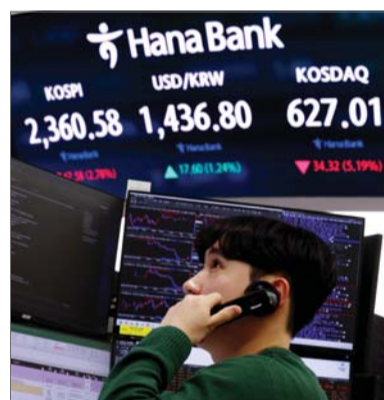
코스피·코스닥 시장 패닉셀
주식 종목 절반 52주 신저가
환율도 26개월만에 최고수준

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주식과 원화값이 급락했다. 채권값도 하락해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

9일 주식시장에선 패닉셀(공포 매도)이 뚜렷했다. 개인투자자 투매로 코스피 지수가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4.32포인트(5.19%)나 급락한 627.01에 장을 마쳤다. 모두 52주 최저가다. 주식시장에선 2631개 종목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87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가 5% 이상 급락하고, 코스피가 2400선을 밀든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사태(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환율 모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불발 이후 정국 불안정성이 급증하면서 윤석열정부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28.16)보다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에 마감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7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7.80원(1.25%)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원·달러 환율 상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 장기화 전망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 직후 달러당 1444.7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자 재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원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안이 확대되며 급등세를 기록했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에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선 개인투자자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코스피시장에서만 8896억원 어치나 팔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3019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0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04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정권의 정책 추진력 약화가 예상되자 연초 이후 상승세가 가팔랐던 금융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방산, 원전 등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업종들도 하락세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원관희 기자 asj123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법률 따라 국정 안정 전념” /사진 뉴시스
▲ 최상목, 주한日대사 만나 우려 불식... “긴급 대응체계 안정적 작동”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尹대통령 긴급 체포-압수수색 요건 검토”
▲ 홍준표 대구시장 “尹, 하야 대책 내나라” 촉구



▲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사진 뉴시스
▲尹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7.7%p 급락... 취임 후 첫 10%대